

결국 1000명대 확진...“K방역 어디 갔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0명대 넘어 13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4만2766명 시민들 불안감...“결단력 없이 눈치만 봐” 정세균 “긴급한 비상 상황”...3단계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K-방역은 어디 간 것이냐”며 정부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기준보다 1030명(국내 1002명·해외유입 28명)이 늘어난 4만2766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선 것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올해 1월20일 이후 328일 만이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대 안팎을 유지했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한 달 사이 1000명대를 넘어서게 됐다.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이달 7일부터 580명→564명→647명→643명→673명→928명→1002명 등으로 하루 평균 719.6명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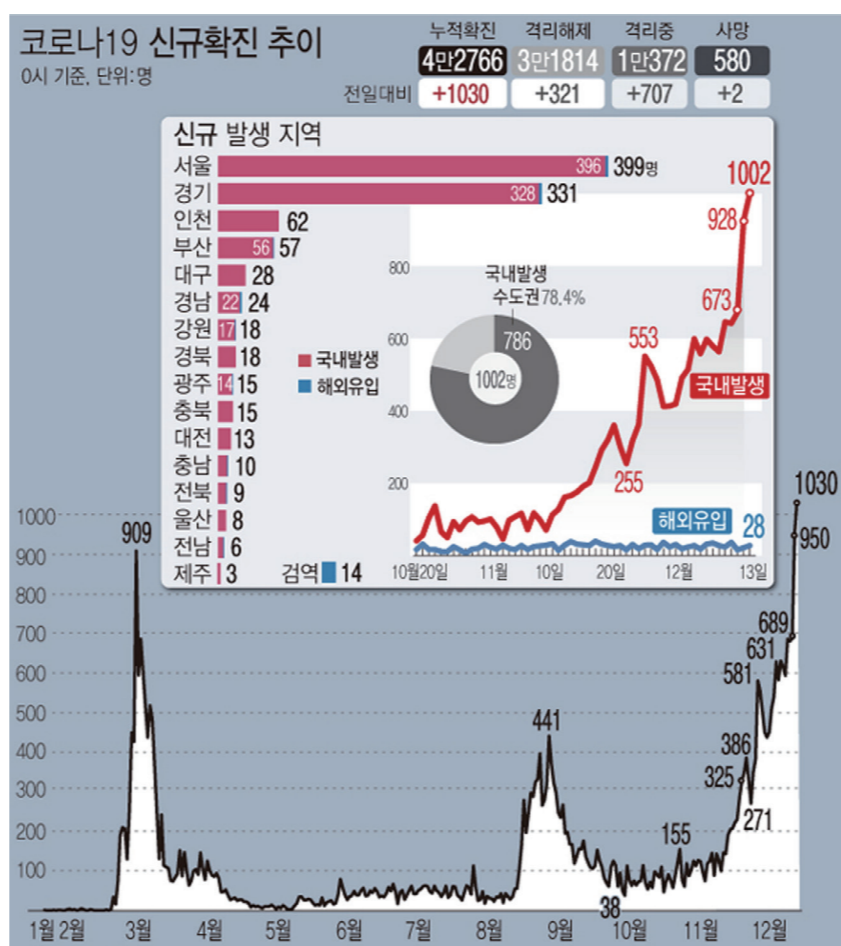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은 1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가 하루 평균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이 발생할 때 검토된다. 정부가 수도권 등에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내리고 오후 9시 이후 식당 등의 영업을 중단하는 ‘셋다운 지침’을 내렸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일부 시민들은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32)씨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기 훨씬 전부터 전문가들이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결단력 없이 주변 눈치만 보면서 거리두기를 점점 점점 올려 지금 같은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정부가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이냐”며 “정부는 전문가들 말처럼 지금이라도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모(58)씨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릴 경우 경제 타격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받을 경제적 손해를 우려해 정부가 격상을 주저한 것으로 있는데, 지금은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이럴 거면 차라리 확실한 3단계를 하고 상황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왜 3단계 격상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3개월 전에 한 전문가가 ‘이대로 가면 신규 확진자 1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다”며 “정부가 방역모범국이라고 한 게 엇그제 같은데, 그럼 이제는 방역모범국이 아닌 것이냐”고 적었다. 이 외에도 “3단계로 올려서 성탄절 앞두고 모이는 종교인들이 좀 막아달라는 것인데, 1000명이 넘는 시점에서 국민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거냐”, “지금도 늦었다. 소

상공인들 그만 팔고 전문가들 말처럼 지금이라도 3단계로 올려라” 등의 반응들이 올라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다. 손발을 닦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봉우기자

‘답답해서’ 자가격리 위반 다중시설 방문 20대 벌금형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광주 지역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격리 기간인 9월 2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광주 서구 커피숍·술집·모텔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방문 장소가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이 예상되는 장소였던 점, A씨를 만난 지인들조차 자가 격리자임을 알지 못한 채 만난 점 등으로 미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양소방서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실시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최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에 나섰다. 최근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리모델링 공사장 화재(12월 1일) 관련하여, 안전불감증 의식개선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 공사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화재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지난 10년간 총 14건의 화재·폭발사고로 인하여 사망 38명이 발생하였

다. 주요 원인으로는 인화성가스·단열재로 인한 화재 폭발사고가 5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배관용접작업 시 용접·용단 불꽃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에 광양소방서는 시정,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연면적 3천㎡이상의 공사현장 1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임시소방시설 설치여부 및 유지관리, 위험물 지정수량 사용 등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위험성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지도 ▲우레탄폼 작업 등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공정 분리) ▲기타 전기·가스 등 화재안전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 확인 등 ▲공사장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이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은혜를 원수로’ 119차량서 구급대원 폭행 50대 실형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소방 구급대원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시 8분께 전남 담양군의 한 주차장에서 저혈당으로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던 구급대원 2명을 폭행,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완도서 마을주민과 해루질 나선 50대 실종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마을에서 해루질 나갔던 주민 가운데 1명이 귀가하지 않아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1시 40분께 완도군 군외면 마을주민 6명에서 해루질 후 철수했으나 일행 중 A(55) 씨가 보이지 않았다.

함께 작업하던 주민 2명은 현장에 다시가 A 씨를 찾아봤으나 보이지 않자 완도해경상황실로 실종 신고했다.

완도해경은 경비정, 팬더헬기, 연안 구조정, 순찰차, 구조대, 민간어선 8척을 동원해 육경과 함께 A 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화순 요양병원 종사자 확진...300여명 동일집단 격리

전체 의료진·환자·보호자 전수검사 실시

전남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 종사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13일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화순 모 요양병원 의료종사자 1명이 코로나19 양

성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전남480번 환자조 분류돼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480번 환자는 화순 모 재활요양병원 직원인 전남479번 환자

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확진판정을 받은 전남479번 환자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전남

475번 환자의 가족이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종사자가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병원 전체에 대해 동일집단 격리 조치하는 한편 전체 의료진, 환자, 보호자 300여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지역 내 동선·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코로나19 감염돼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다”며 “최근 모임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행사 등 연말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지역감염 426명, 해외유입 54명 등 총 480명이다.

화순=박순철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